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목장 나눔지 (2024년 5월 5일 - 5월 11일 주간)

1 부: 자녀들과 함께 (Olive Blessing)

1. 다함께 즐겁게 찬송하기

* 기쁨으로 찬양

- 292 장 성령이 오셨네
- 392 장 예수 우리 왕이여

* 찬송가

- 218 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401 장 주의 곁에 있을

2. 감사의 나눔과 축복 기도(Olive Blessing)

- *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자녀들이 지난 주를 지내며 가장 감사했던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 *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목자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2 부: 따로 모여서

3. 말씀 나누기

“하나님의 선한 손”(느 2:8-18)

- 1)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52 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8 절)는 겸손하고 고결한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참된 신앙인은 기도 없이 일만 하지도, 행동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는다”는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지금 나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과 실력을 키워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공통점은 자신에 사명에 집중하였고, 기도하는 지도자 였습니다. 그럼 이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특별히 제사장인 아니었던 평신도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 느낀 바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던 바를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

4. 연합교회/목장 광고 및 생일 축하

* 지난 주일 주보를 보면서 교회의 중요 행사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의논할 사항을 나누어 봅시다.

5. 삶의 나눔

* 목원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기도 응답 받았던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지난 주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주변에 계신 나의 VIP 들이 누구인지, 그 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6. 합심 기도

* 오늘 목장에서 서로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목장 안에서 비밀을 서로 지키며 기도합니다)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고 있는 목자/부목자 수련회에 참석하신 목자님 가정들을 위해서

설교요약:

하나님의 선한 손 (느 2:8-18)

*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별처럼 빛을 발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대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뒤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나타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입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v.8)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겸손함과 고결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며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손은 진중히 기도하며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 신앙인은 인내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행동해야 합니다(느 1:1; 느 2:1).

* 에스라가 '이상주의적 믿음'을 대변한다면 느헤미야는 '실용주의적 믿음'을 대변합니다.

* 참된 신앙인은 기도 없이 일만 하지도, 행동 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습니다.

2. 하나님의 손은 신중히 계획하며 사명을 이루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 "밤에 일어나..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v. 12)

*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적용을 위한 결론:

* 당신의 믿음은 에스라의 이상주의적인 믿음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의 실용주의적인 믿음을 닮았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 에스라는 율법을 회복,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시켰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바로 그 일이 이루어 지며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초청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